

EFL 읽기 자료로 연재만화(comic strips) 활용 경험 연구: 보건복지학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김병선*, 손은경**

*가톨릭관동대학교,

**중부대학교

e-mail:bstesol@cku.ac.kr

A Study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Experiences on the Use of Comic Strips as EFL Reading Materials

Byung-Sun Kim*, Eun-Kyoung Son**

*VERUM College,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Dept. of Child Care, Joongbu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EFL 읽기 자료로 연재만화 활용의 가능성을 대학생들의 영어 읽기 학습 경험을 통해 알아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실제 학습해 보고 이들이 경험한 의미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비교과 활동에 참여한 대학생들 중, 의도적 표집을 통해 8명을 선정하였다. 자료는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하였고,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영어 읽기 학습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덜 수 있었다. 둘째, 그들은 영어 어휘 학습이 보다 수월하게 습득된다고 하였다. 셋째, 그들은 영어 읽기 학습 접근성 향상을 경험하였다. 넷째, 그들은 영어권 현지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다섯째, 그들은 자발적 학습을 경험하였다. 여섯째, 그들은 고차원적 사고능력 향상을 경험하였다. 일곱째, 영어 읽기 자료로써 활용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연재만화는 영어 읽기 학습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라 판단되며, 영어학습자들의 흥미와 동기유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1. 서론

인터넷의 발달로 영어로 된 매체를 흔하게 접하게 되면서 EFL 환경에 놓인 사람들에게도 영어 읽기는 다양한 텍스트로부터 정보를 얻는 데 중요한 기술로 인식하고 있다(Floris & Dvina, 2015). EFL 환경인 우리나라 영어 교실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고 있는 영역 역시 읽기라 할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영어 읽기가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영어 읽기가 영어 교사들이 가장 쉽게 지도할 수 있는 영역이면서 동시에 학습자들이 듣기, 말하기, 쓰기에 비해 수월하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인식(임병빈, 2007)이 팽배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입시 위주의 영어 수업은 읽기 본연의 기능, 즉 정보의 습득이나 읽는 즐거움보다는 어휘, 문법, 그리고 난이도 있는 독해 문제 풀이 등 학습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습자들의 충분한 학습의 욕과 동기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장옥희, 2006).

연구자는 영어학습자들의 동기 결여의 원인을 영어 교사들이 다양한 읽기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영어 교과서에만 의

존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판단한다. 이와 관련해 Maulana와 Fitrawati(2017)은 영어 읽기 자료로써 영어 교과서는 학습자들에게 지루함을 줄 뿐 아니라 매력을 줄 수 없는 매체라 일정한 바 있다. 이는 영어 교과서 속 읽기 자료들이 교수자가 지도와 평가에 활용하기는 유용할 수 있겠으나, 학습자들의 영어 읽기에 대한 흥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 이진경(2009) 또한 고등학교 교과서 분석에서 읽기 자료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재미를 느끼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하였고, 김동규(2008) 역시 단순한 영어 교재만으로 수업의 다양화는 물론 학생들의 학습 지속 효과에도 한계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읽기 자료의 교실 활용 가능성 모색과 대학생들의 영어 읽기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연재만화(comic strips)를 채택하고, 읽기 자료로써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연재만화는 시각화를 통한 텍스트 읽기로 즐거움은 물론 이해력 증진에도 도움을 준다(Liu, 2004). 또한 전 연령대와 영어 수준과 무관하게 영어 읽기를 지도하는 데 효과적이고 실제 대화 상황 제시와 문화교육도 가능하게 하여 의사소통 능력 증진에도 탁월한 실제적 매체로 알려져 있다(Smith, 2006).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연재만화를

활용한 영어 읽기 교육이 국외 연구들에 집중되어 있고, 국내 연구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데 본 연구가 기여하는 바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영어 읽기 학습에 연재만화를 적용한 국외 연구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MERÇ(2013)는 최근 교육의 동향이 언어 기능에서 고차원 사고능력 교육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보고, 연재만화가 고차원 사고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매체를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주장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터키 EFL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재만화가 읽기 이해력에 미치는 효과를 실험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유창성 2그룹(lower-intermediate & upper-intermediate)과 4 유형의 텍스트(low-level text only, low-level text with comic strips, high-level text only, and high-level text with comic strips)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유창성과 텍스트 수준에 관계없이 연재만화를 활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독해 향상을 드러냈다. 이는 대학생들이 시각화를 동반한 읽기 텍스트가 읽기 교육에 효과적임을 보여준 것이다. 즉 읽기에 구체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어 이해도와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이중부호화 이론(Dual Coding Theory)의 근거하여 연재만화가 영어 읽기 교육 현장에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연구라 하겠다.

다음으로 Kohnke(2021)는 특수목적영어(ESP) 교실에서 연재만화에 대한 제 2언어 영어학습자의 인식을 질적으로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홍콩 10학년 학습자들은 전통적인 교수 방법의 변화를 피하였고, 그들의 동기부여는 물론 학문적 지식과 어휘에 대한 이해 또한 촉진시켜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에 유용하면서 동시에 언어의 창의성도 함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주었다는 데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반면에 Khoii와 Forouzesh(2010)의 연구에서 보면 연재만화가 영어 읽기 능력의 성공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연구자들은 초급 영어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통제집단(연재만화가 포함되지 않은 텍스트를 읽음)과 실험집단(연재만화가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를 읽음)으로 나누어 양적 연구를 하였는데,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연재만화의 포함 여부가 학습자의 영어 읽기 향상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는데 초급 수준의 경우 오히려 시각적 매체로 인해 읽기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준 결과로 해석하였다. 다시 말해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할 때 연재만화가 교육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본 연구에서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연재만화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상황에서 영어 읽기 학습에 연재만화를 활용하고, 대학생들이 경험한 의미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은 국내 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효과적인 읽기 자료 발굴에 동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EFL 환경의 한국 대학생들에게 영어 읽기 자료로 연재만화를 활용해 영어 읽기 활동을 경험하게 한 후, 그 의미의 본질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탐색해 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언급한 현상학이라는 개념은 주어진 모든 것을 괄호치기(blanketing)하고, 현상(직접적으로 주어진 것) 자체를 규명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각 개인이 겪는 영어 읽기 자료로써 연재만화의 활용에 대한 경험을 드러내는 데 본 연구에 부합하는 방법이라 판단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물론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개인들의 생활 세계의 체험을 드러내는 건 사실 불가능하겠지만, 현상학적 방법들, 즉 판단중지, 현상학적 환원, 본질 직관의 단계를 거친다면 최대한 현상 그 자체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2.2 연구 대상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충청도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1-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며, 비교과 활동 시간에 참여자를 모집하여 진행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에서 이론의 심화에 초점을 둔 비확률적 표집 방법인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여 13명의 지원자 중 8명의 최종 연구참여자로 선발하였다. 이들은 보건복지학부에 속한 학생들로 남학생 4명, 여학생 4명 동일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 전수조사를 통해 연재만화를 활용한 영어 수업, 개인적 영어 읽기 학습을 경험 등에 관련하여 인터뷰를 하였고, 그 결과 8명 모두 만화를 활용한 영어 읽기 학습의 경험이 없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영어 수준(토익 점수)은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학부	이름	학년	성별	영어 수준(토익점수)
보건 복지학부	A	1	F	770
	B	1	M	710
	C	1	F	440
	D	1	M	430
	E	2	F	380
	F	2	M	590
	G	2	F	750
	H	2	M	720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이름은 실명 대신 알파벳으로 대신하였다.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이 학회 논문 발표 및 게재에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심층면담 시 모든 대화 내용이 녹음 및 기록된다는 것임도 밝혔다. 수집된 일체의 자료는 사적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과 연구 종료와 동시에 파기될 것도 서면으로 약속하였다.

2.3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해 연구참여자들은 2022년 4월 27일부터 5월 9일까지 10회에 걸쳐 영어 읽기 자료로 연재만화를 활용해 자기주도 영어 학습을 실시하였다. 1회차에는 연구자가 연재만화의 개념과 관련 용어 그리고 연재만화가 영어 읽기 학습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소개하였다. 2회차에는 연구자가 연재만화를 다양한 주제로 10개 중 5개를 가지고 영어 읽기 학습의 예로 설명하였고, 연구참여자들은 나머지 5개를 가지고 영어 읽기 학습에 적용해 보는 연습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3회차부터 10회차까지 연구참여자들이 직접 검색을 통해 연재만화를 5개를 선택해 자기주도 영어 읽기 학습을 수행하게 하고, 결과물 제출은 SNS(카카오톡)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결과물들은 연구참여자 개별적으로 점검하고 피드백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경험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 탐구하기 위해 심층면담을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는 연구 참여자들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들음으로써 보려는 시도이다.

2.4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질적연구방법에 주로 사용하는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기에 대면 방식 대신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활용하여 일대일 면담을 하였다.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으며 매일 오전 오후 나누어 개인별로 60분씩 비구조화된 질문을 가지고 면담을 하였다. 초반에는 라포(rapport)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적인 관심사(중간고사, 기숙사 생활, 아르바이트, 친구 관계, 진로 등)를 주제로 대화를 시도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어떠한 선이해와 가정이 면담 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질문 외에는 관여하지 않으려 애썼다.

수집된 자료는 김영천(2013)이 제시한 현상학적 분석 절차를 따랐다. 첫째로, 심층 면담에서 추출된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반복적으로 읽어나갔다. 둘째, 그 체험 속에 담겨 있는 주제들을 파악하기 위해 읽기와 성찰을 하였다. 셋

째, 의미 있는 구절을 찾고, 의미 단위로 묶는 작업을 하였다. 넷째,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문장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주제와 중심내용으로 세분화하고 범주화하였다.

3. 연구 결과

EFL 읽기자료로 연재만화를 활용한 대학생들의 경험을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총 89개의 원자료 중에서 28개의 중심내용과 7개의 대주제로 나누어 범주화할 수 있었다.

[표 2] 도출된 연구 결과

중심내용	대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도 함께 해서 거부감이 덜하다. ◦ 딱딱한 교재가 아닌 유머스러운 만화라 부담이 덜하다. ◦ 개인적으로 복잡한 것은 잘 읽게 되지 않는데, 짧은 자료라 자연스럽게 읽힌다. ◦ 단어가 많지 않아 부담이 없다. ◦ 어려운 단어와 문장이지만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림이 있어 자신감이 생긴다. ◦ 타인에게 말해줄 기회가 있을 때도 부담이 없을 것 같다.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알지 못해도 시각자료를 통해 단어가 유추된다. ◦ 단어의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교과서와 달리 생소한 표현들이 많아 사전을 찾아가며 어휘는 물론 발음도 익히게 된다. ◦ 특별한 리듬감 같은 라임이 있어 저절로 외어지는 것도 많이 있다. ◦ 3단어 이상되는 문장이 많지 않아서 외우거나 사용할 때 기억하기 쉽다. 	영어 어휘 습득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볍게 영어 읽기 학습을 할 수 있다. ◦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충분히 영어 읽기 학습이 가능하다. ◦ 사진처럼 찍어서 보관이나 매일매일 읽기가 수월하고, 알람을 설정해 공부할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영어 읽기 학습 접근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권 대중문화, 현지의 시사 문화를 엿볼 수 있다. ◦ 외국인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영어 표현들을 익힐 수 있다. ◦ 외국인 친구에게 comic strip을 보여줬더니 자기 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해서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하니 더 기억이 잘되는 것 같다. ◦ 웃긴 상황에서 같이 웃을 수 있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영어권 현지인들의 언어와 문화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석 2조의 효과: 짧은 토막글에 삶의 교훈까지 얻을 수 있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 흥미와 재미가 있어 과제 이외 자료도 찾아 공부하게 된다. ◦ 속담유형은 의미가 해석상 전혀 아닐 것 같은데 한국어보다 영어가 함축적 의미가 더 있어 두 	자발적 학습 가능

<p>언어 공부의 자동으로 되는 장점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적으로 인물들의 표정이나 행동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이해는 물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 ○ 영어권 문화의 실용주의가 더 확실하게 생활언어 표현으로 알 수 있어 많은 생각을 준다. ○ 대사의 함축적인 표현을 통해 여러 가지의 해석의 여지를 주어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게 한다. 	<p>고차원적 사고능력 향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어가 대부분 대문자인 경우가 많아 단어를 인식하기가 어렵다. ○ 긴 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읽기 학습의 심화가 어렵다. ○ 짧은 문장 및 단어만 가지고서 문화적 맥락의 의미를 완전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관심이 없는 경우는 이해가 더 어려울 것 같다. ○ 가볍게 학습하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저널과 같은 약간은 긴글과 같이 짝궁지어 활용되면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p>영어 읽기 자료로써 활용의 어려움</p>

3.1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

연구참여자들은 연재만화가 짧고 그림을 동반한 자료이기에 읽는 데 심리적 부담을 낮춰준다고 인식하였다.

3.2 영어 어휘 습득 용이

연구참여자들은 연재만화가 그림을 통해 어휘를 유추하기 용이하고 발음, 의미, 기억 등 영어 어휘 습득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3.3 영어 읽기 학습 접근성 향상

연구참여자들은 연재만화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볍게 읽을 수 있고, 혼자서도 충분히 읽기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좋다고 인식하였다.

3.4 영어권 현지인들의 언어와 문화 이해

연구참여자들은 영어권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 그리고 생활 습관을 익힐 수 있어 유익하다고 인식하였다.

3.5 자발적 학습 가능

연구참여자들은 연재만화가 흥미와 재미를 일으켜 스스로 학습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3.6 고차원적 사고 능력 향상

연구참여자들은 연재만화가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영어권 문화가 포함되어 있어 사고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3.7 영어 읽기 자료로써 활용의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은 연재만화가 평소 사용하지 않는 대문자로 되어 있어 인식의 어려움, 읽기 학습자료로 짧다는 점에서 심화학습이 되기에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비교과 활동에 참여하는 보건복지학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재만화가 EFL 영어 읽기 자료로써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그들의 경험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연재만화는 EFL 학습자들의 읽기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주고, 어휘습득, 문화습득, 자율적 학습, 사고능력 등에 효과적이라 하겠다. 연구참여자들이 느끼는 영어 읽기 자료로써 활용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이 제시된다면 향후 연재만화는 영어 읽기뿐 아니라 영어학습 전반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김영천, “질적연구 방법론 III: Writing 제2판”. 아카데미프레스, 2013년.

[2] 임병빈, “속독훈련과 자율독서 학습방법을 통한 대학생의 영어 독해력 향상 방안”, 영어어문교육, 제 13권 1호, pp. 181-210, 2007년.

[3] 이진경, “고등학교 교과서 읽기 자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의사소통적 관점에서”, 영어어문교육, 제 15권 4호, pp. 365-382, 2009년.

[4] A. MERÇ, “The effect of comic strips on EFL reading comprehension”, International Journal on New Trends in Education and Their Implication, Vol.4 No.1, pp. 54-64, 2013.

F. Floris., M. Dvina, Study on the Reading Skills of EFL University Students. TEFLN Journal, Vol.20, No.1, pp.37-47. 2009.

[4] L. Kohnke, “L2 learners’ perceptions of a comic strip in an ESP classroom”, The Asian ESP Journal, Vol.17, No.5, 44-64, Jun. 2021.